

□ 고경면

*가수리

이 마을은 500여년전에 영천 최씨가 이곳에 정착하여 웅기를 구우면서 생활을 했다 한다. 옛날 이곳에 가나무로 된 정자가 있었으므로 가정(柯亭)이라 부르다가, 일제때 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가수(柯樹)라 칭하고 1934년 행정구역 개편시 1, 2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도리

이 마을의 개척자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옛날 곧은 골짜기란 뜻에서 古道谷이라 불렀다 한다. 敏道란 마을은 주민들이 마을을 개척하여 민첩하게 마을을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지어진 마을이며, 1934년 행정구역 개편시 1,2리로 분리되었다.

*단포리

이 마을이 개척된 것은 200년전에 경주 김씨가 이 마을을 정착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 100여년 전 영양현 관리가 석양무렵, 이곳을 순찰할때 강변에 이르자 보름달이 수면에 아름답게 비치고, 흐르는 강물따라 등지를 찾는 물새들의 울음소리 또한 경쾌하여 단포라 했는데, "丹"은 황무지를 뜻하고, "浦"는 갯벌을 뜻한다.

*논실리

이 마을의 개척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00여년전 처음으로 김녕 김씨가 이 마을에 정착하였다 한다. 임진왜란 때 영천 의병장, 권정 장군과 김귀희(金貴希)장군이 이곳에서 거문고와 비파 소리로 암호를 정하고 제반 작전을 의논하여 왜군을 크게 무찔렀던 바, 이 마을을 논실(論瑟)이라 한다. 일제 때 일본인들이 강제로 담곡(沓谷)이라 하였는데, 광복 이후 이곳 주민들이 동명을 다시 논실동(論瑟洞)으로 개칭하였다.

*대의리

구전되는 바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星山李氏조상이 피난와서 이곳에 정착하여 살았다 한다. 이에 동명을 군말, 굼말이라 하였다가, 거룩한 분이 이 곳에서 출생하였다 하여, 거루실, 儀谷, 大谷이라고도 부르다가 행정구역 개편시 "大儀"라 불리어지고 있다.

*덕정리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신라시대에 송씨가 황수탕을 발견하게 되어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한다. 한 때는 이 부근 산에서 많은 황을 캐었으며 이로인하여 이 일대는 모기를 찾아볼 수 없는 마을이었다 한다.

*도암리

마을의 개척자와 연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300여년전에 황씨가 처음 개척하였고 그 후에 밀양 손씨가 집단이주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한다. 뒷산에 바위가 많아 도암(道岩)이라 칭하였고 1934년 행정구역 개편시 1, 2리로 분리되었다.

***동도리**

지금부터 200여년전에 김해 김씨인 김성두씨가 이 마을을 개척했다고 구전되고 있다. 이 곳에 조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은 부처가 두 개 있어 이 절을 이불사(二佛寺)라 하고 마을 명칭 또한 이불이라 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추곡면의 전사동 일부를 병합하여 동도(東道)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리**

300여년전, 파주 염씨(坡州 廉氏)가 개척하였다고 하며 질그릇을 구웠다고 한다. 질그릇을 구웠던 그릇가마가 있었다 하여 가마골로 칭했고 행정구역명도 부동(가마골)이라 하게 되었다.

***삼귀리**

이 마을을 개척한 때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300여년전에 월성이씨가 이 곳에 정착하였다 한다. 마을 앞에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셋 있었다 하여 三髻 또는 三歸라 하였으며, 지금은 삼귀로 불리고 있다.

***오룡리**

이 마을의 역사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때 달성 서씨가 처음으로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전한다. 지형이 용처럼 생겼다 해서 미룡(美龍)이라 했는데, 일제때에 강제로 미농(彌農)으로 고쳐 부르다가 행정구역 개편시 오룡(五龍)으로 불리어졌다.

***오류리**

구전되는 바에 의하면 이 곳에 신라시대에 사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으로 기와, 옹기 등이 발견되고 있다. 옛날에 이 곳에는 버드나무가 많았기에 오류골이라 불렀는데 이 곳에 마을이 들어서자 마을 이름을 오류골이라 불렀다 한다.

***용전리**

본면에서 비교적 일찍이 개척된 마을로 알려져 있으며, 옛날 마을 동쪽 못에서 용이 못가 밭의 바위에 앉았다 승천하였다 하여 용전(龍田)이라 칭하고 추곡면(追谷面)에 속하였다. 1934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고경면에 속하게 되었으며, 1, 2리로 나누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사리**

이 마을의 개척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디딜방아"를 보아 800년전이라 추정하고 있다. 경주 김씨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하여 마을 앞에 백사장이 있었다하여 전사(前沙), 새일 앞새일이라 불렀다 한다. 1934년 행정구역 개편시 1, 2리로 분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차당리**

이 마을의 개척자와 연대는 알 수 없으며 본래 흥해군 북안면에 속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경면 차당리(次堂里)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창상리**

전하는 바에 의하면, 병자호란 후 東萊人, 鄭雲南이란 사람이 이 마을에 정착하였다 한다. 병창 뒤편에 있다해서 뒷골이라 하였으며, 또 병창 위쪽이 되므로 창수 창상이라 하였다. 현 단포 농협창고 옆으로 흐르는 물 줄기를 따라서 북쪽 용담 병창고까지 강을 이용해서 군량미를 운송하였으니, 여기서 창고 위 지역을 倉上이라 칭한다.

*** 창하리**

구전되는 바에 의하면 250여년전에 水原白氏가 이 마을에 정착해서 다래 덩굴을 쳐내고 살기 시작하였으며 옛날 이 곳에 병창이 있는 아래에 큰 바위가 있어 창방우라고 하였으며 그 후 優氏와 李氏가 창방우 안쪽에 정착하여 살던 중 각 성씨가 모여들어 창방우와 안부락이 합쳐지게 되어 큰 동네가 되었다 한다.

*** 청정리**

마을의 개척연대는 알 수 없고, 옛날부터 거울 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 하여 청경(淸鏡)이라 하였는데, 이는 옛 청경면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마을에 회나무 정자가 있어 괴정리(槐亭里)라 하다가 1934년 4월 1일 행정구역 변경시에 청정리(淸亭里)가 되어 1, 2리로 분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초일리**

마을 뒷산에 "고려장"이 있어 고려시대에 이 마을이 개척되었다고 추측한다. 徐氏가 처음으로 익새, 속새등이 무성한 이곳을 개척하여 기름진 마을로 만들었다 하여 초일(草日)이라 불렀으며 현재 행정구역명으로 불리고 있다.

*** 파계리**

이 마을의 개척자와 연대 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350여년 전에 밀양 박씨가 처음 개척하였다 한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이곳에 침입하여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쉬다가 이 지방 주민들에게 두 차례나 크게 섬멸당하였다 하여 "敗愚"라 부르다가 한일합방 이후 행정구역 개편시 "파계"라 칭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학리**

옛날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화전민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한다. 학이 많이 서식하였다 하여 학리(鶴里)라 칭하였다.